

6-8-60 최여재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 화창함

제목 : 5월 12일 오후의 하루

오늘 한양공원으로 자전거를 타러갔다. 자전거를 타다 바퀴의 공기가 빠져서 탈수있었는데 옆에서 쉬고있던 아저씨가 자전거 펌프를 빌려주셔서 다시 자전거를 탈수있게 되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새해 배짱까지 가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 내 사촌언니가 머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미용실에 갔다. 사촌언니가 머릿 세팅이란걸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2시간 30분 걸리고 돈은 1만원이 든다고 해서 좀 놀랐다. 처음 머리를 피는 머리를 한 다음 파마를 했는데 이상한 기계를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샴푸를 하고 보니 시간이 빨리갔다. 집으로 오니 마침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런닝맨이 나와있었다. 근데 곧 외식을 하기로 해서 녹화해 놓고 밥을 먹어 갔다. 메뉴는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이었다. 간장게장은 뭐가 특이한 거지 간장에 버무리서 그런 것 같다. 양념게장은 매콤했다. 나는 그냥 게는 짜서 먹는데 좋게 생각된다. 거의 휴먼살은 달콤하고 부드럽기 때문이다. 집에 오면 TV를 보면서 호미죽 먹고 수박도 먹고 고추도 먹었다. 휴가로 또 스마트폰으로 카톡도 하고 곧 이어 사촌언니와 가족들이 간다고 해서 차타면서 초콜릿을 먹고 초콜릿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학교 숙제를 하고 책을 보았다.